

김정희

(金正喜, 1786 정조10 ~ 1856 철종7)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학자·서화가·금석학자(金石學者)이다. 본관은 경주이고 자는 원춘(元春), 호는 완당(阮堂)·추사(秋史)·예당(禮堂)·시암(詩庵)·과파(果坡)·노과(老果)이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출생하였다. 1809년(순조 9) 생원이 되고, 1819년(순조 19) 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충청우도암행어사·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이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24세 때 연경(燕京)에 가서 당대의 거유(巨儒) 완원(阮元)·옹방강(翁方綱)·조강(曹江) 등과 교류, 경학(經學)·금석학(金石學)·서화(書畫)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예술은 시·서·화를 일치시킨 고답적인 이념미의 구현으로 고도의 발전을 보인 청(淸)나라의 고증학을 바탕으로 하였다. 1840년(헌종 6) 윤상도(尹尙度)의 옥사에 연루되어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1848년 풀려나왔고, 1851년(철종 2) 헌종의 묘천(廟遷) 문제로 다시 북청으로 귀양을 갔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학문에서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주장하였고, 서예에서는 독특한 추사체(秋史體)를 대성시켰으며, 특히 예서·행서에 새 경지를 이룩하였다. 그는 함흥 황초령(黃草嶺)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巡狩碑)를 고석(考釋)하고, 1816년에는 북한산 비봉에 있는 석비가 조선 건국시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세운 것이 아니라 진흥왕(眞興王) 순수비이며, '진흥'이란 칭호도 왕의 생전에 사용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을 저술하여 근거 없는 지식이나 선입견으로 학문을 하여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으며,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아 북경으로부터의 귀국길에는 불경 400여 권과 불상 등을 가져와서 마곡사(麻谷寺)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노년에는 과천 청계산 기슭에 있는 선고묘(先考墓) 옆에 가옥을 지어 수도에 힘쓰고 이듬해에 광주(廣州) 봉은사(奉恩寺)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은 다음 귀가하

여 세상을 뒀다. 문집에 『완당집(阮堂集)』, 저서에 『금석과안록(金石過眼錄)』 『완당척독(阮堂尺牘)』 등이 있고, 작품에 『묵죽도(墨竹圖)』 『묵란도(墨蘭圖)』 등이 있다.

題丹塵冠嶽山詩

冠岳詩之第四句 一碧幾千年 極爲雄奇 人所易解 且或可能 至於第二句之巖松相鉤連 外看 若順筆過去 一尋常接來者 此非胸中有五千卷筆底具金剛杵 不可能 天然湊泊 雖作者亦不自知 何況凡識俗諦 可能而可解也 古人妙處 專在此一境 所以古作者之異於今人也 今汝非有眼圓境熟 能設得此一境也 古人尙有以五千卷金崗杵 致之以人工 此則自然流出 暗合於古人 譬如槽廠盧行者 菩薩明鏡之偈 五祖所以心折 不覺屈陶之傳付耳

단전(丹塵)의 관악산시에 제하다

관악산 시의 제 4구인 “몇 천 년을 한결같이 푸르렀도다[一碧幾千年]”는 극히 웅기(雄奇)하여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또 혹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구의 “바위와 솔이 서로 엇물렀구려[巖松相鉤連]”에 이르러는 곁으로 보면 순필로 지나가서 심상하게 접속해 온 것 같은데 이는 가슴속에 오천 권(五千卷)이 들고 붓 밑에 금강저(金剛杵)¹⁵⁰⁾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천연스럽게 맞추어져서 비록 작자라도 스스로 알지 못할 것인데 더구나 범식(凡識)과 속체(俗諦)로서 가능하고 가해(可解)할 수 있는 일이라. 옛사람의 묘한 곳은 오로지 이 한 경지에 있으니 이 때문에 옛날의 작자는 지금 사람과 다른 것이다.

지금 내가 안력이 원만하고 익숙한 경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능히 이 한 경(境)을 터득했다 말이나. 옛사람은 오히려 오천 권·금강저를 가지고도 인공(人工)으로써 이루는데 이는 자연히 흘러나와서 암암리에 옛사람과 합치되었으니 비하자면 조창(槽廠)의 노행자(盧行者)의 보리명경(菩提明鏡)의 게(偈)¹⁵¹⁾

150) 금강저(金剛杵) : 범어로 벌절라(伐折羅)로서 본디 인도의 병기(兵器)를 삼았는데 밀종(密宗)이 빌려서 건리(堅利)의 지(智)를 표(標)하여 번뇌를 끊고 악마를 굴복시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인왕경 상(仁王經上)』에 “手持金剛杵者 標起正智 猶如金剛”이라 하였다.

와 같다. 때문에 오조(五祖)가 마음이 수그러져 저도 모르게 굴순(屈詢)¹⁵²을 전해주게 된 것이다. [완당전집(阮堂全集) 6권]

秋日重到瓜地草堂 가을날 과지초당에 다시 오다

出門秋正好	문을 나서니 가을이 정히 좋은데,
携納更堪憐	중을 끌어 다시금 어여쁘다네.
款款三峯色	정겨움 내보이는 삼봉의 빛은,
依依五載前	가물가물 다섯 해 이전이로세.
青苔仍屋老	푸른 이끼 낡은 집에 그대로 있고,
赤葉漸林妍	붉은 잎은 수풀에 물들어 곱네.
飄泊西東久	동서로 떠돈 적이 하도 오래라,
山中銷暮煙	산 속에 저문 연기 잠기어 있네.

[완당전집(阮堂全集) 9권]

151) 조창(槽廠) ... 계(偈) : 노행자는 선종(禪宗) 동토(東土) 제육조(第六祖) 혜능(慧能)을 이룸. 8세에 부친을 여의고 장성하자 집은 더욱 가난하여 나무를 해다가 팔아 편모(偏母)를 봉양하였다. 하루는 저자에 들어가 어떤 사람이 『금강경(金剛經)』을 외우는 것을 듣고 그 얻은 곳을 물어서 기주(蕪州) 황매산(黃梅山)의 오조(五祖) 홍인선사(弘忍禪師)를 찾아갔다. 오조는 물기를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하였다. 조사(祖師)는 말하기를 “영남 사람은 불성(佛性)이 없다.” 하자. 혜능은 “사람은 곧 남북(南北)이 있지만 불성은 어찌 그렇겠습니까.” 하니, 사는 그가 비범한 사람임을 알고서 대방(碓房)에 들어가 쌀을 찼으라 하고 인하여 노행자라 불렀다. 거기서 8개월을 지내자 오조가 부수(付授)할 때가 왔음을 알고 중도(衆徒)로 하여금 각기 득법(得法)의 계(偈)를 써 올리라 하자. 이때 상좌(上座) 신수(神秀)가 계를 쓰기를 “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塵埃埃”라 하니, 혜능은 듣고서 “나의 소득(所得)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하고 가만히 동자(童子)를 고용(雇傭)하여 밤에 벽 사이에다 한 계를 쓰기를 “菩提本非樹 明鏡亦非臺 本來無一物 何處惹塵埃”라 하였다. 오조는 그것을 알고서 남몰래 대방(碓房)에 들어가 물기를 “쌀이 희냐?” 하니 “희지만 키를 거치지 않았습시다.” 하였다. 오조는 막대기로 대(碓)를 세 번 치면서 갔다. 혜능은 그 뜻을 알아차리고 그날 밤 삼경에 조상의 방에 들어가니 조사는 마침내 의법(衣法)을 주었다.

152) 굴순(屈詢) : 포백(布帛)의 이름인데 제일포(第一布)로서 대세포(大細布)를 말한다. 『의초육첩(義楚六帖)』 22에 “寶林傳云 唐言第一布 紡本棉花心爲之 即達摩所傳之衣七條也 自師子尊者傳與”라 하였다.

陪家君上三藐寺 仲弟及金季良咸聖中偕之 時雪庵懶雲二釋亦
不期而至 皆近日名宿也

아버님을 모시고 삼막사에 올라가는데 중제 및 김계량·함성중이 함께 갔다.
이때에 설암·난운 두 승려도 역시 기약을 아니 하고 왔는데 모두 근일의 이
름난 승려들이다.

招提一宿喜歡緣
雙袖天風慾界仙
靑白蓮交呈氣象
百千海攝現澄圓
往來方便飛雲履
撥轉機鋒淪月泉
紅日樓前如鼓大
無量壽相是中邊

절간[招提]¹⁵³에 한 밤 자니 인연 중에 기쁜 인연,
쌍소매에 하늘 바람 욕계의 신선일레,
청련 백련 어울려 기상을 바치는데,
백천 바다 함께 얹혀 징원을 나타내네,
방편으로 오락가락 구름신을 드날리고¹⁵⁴,
기봉(機鋒)¹⁵⁵을 뽑아 굴려 달샘에 씻어 내라.
다락 앞의 붉은 해 크기가 북 같으니,
한량없는 수상이 바로 이 가운데렐레.

[완당전집(阮堂全集) 9권]

果寓卽事

과천 우사(寓舍)에서

庭畔桃花泣
胡爲細雨中
主人沈病久
不敢笑春風

뜨락이라 복사꽃 눈물흘리니,
하필이면 가랑비 내리는 속에,
주인이 병에 잠긴 적이 오래라,
감히 봄바람에 웃길 못하나보다.

[완당전집(阮堂全集) 9권]

153) 절간[招提] : 『당회요(唐會要)』에 “관(官)에서 사액(賜額)하는 것은 사(寺)가 되고 사조(私造)하는 것은 초제난야(招提蘭若)라 한다.” 하였음.

154) 구름신을 드날리고 : 육유(陸游)의 화성원시(化成院詩)에 “飛履到上方 漸覺所見寬”이라 하였음.

155) 기봉(機鋒) : 불가의 용어인데, 석씨가 선리(禪理)를 말함에 있어 그 언사가 적상(迹象)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봉망(鋒芒)이 예리한 것을 말함. 소식의 금산묘고대시(金山妙高臺詩)에 “機鋒不可觸 千偈如飜水”라 하였음.

觀音寺贈混虛

携僧上界宿
一偈萬緣輕
松日敞神界
山風無熱情
窓中只嶽色
寺裏唯蟬聲
清塞心傳句
應教世眼驚

관음사에서 혼허(混虛)에게 주다

중을 이끌고 상계에서 묵노라니,
한 게에 많은 인연이 가벼워지네.
솔 위의 해는 신계를 푼 트여오고,
뒤틀바람은 열정을 없애주누나.
창안에는 다만 산 빛깔인데,
절 속에는 들리는 게 매미의 소리.
청색이라 마음을 전하는 글귀¹⁵⁶⁾,
응당 세상 눈을 놀라게 하리.

[완당전집(阮堂全集) 9권]

登冠岳絶頂 吟與崔鵝書 관악 절정에 올라 최아서에게 주다

遙岑一抹柳千絲
正是鷗煙鷺雨時
帆身欲上龍山口
無恙西風汐水遲

먼 뒀부리 한 가닥에 실버들 천 오라기,
갈매기 해오라긴 물안개와 성긴 빗속에 있네.
용산 입구로 배 돛을 올리니,
서넛 바람 고이 불고 썰물은 느릿느릿.

[완당전집(阮堂全集) 10권]

清溪山樵人得靈樞作 청계산 나무꾼이 영아(靈樞)¹⁵⁷⁾를
얻었다기에 짓다

四千年後老樵斤
析木天然辨古文
靈卉人形時斷得
擔頭五葉傲孤雲

사천 년 지난 뒤에 늙은 초부 도끼날이,
장작패다 자연으로 옛 글을 분별했네.
신령한 풀 인형¹⁵⁸⁾을 이따금 캐들고서,
머리에 오엽 엮고 고운을 내리보네.

[완당전집(阮堂全集) 10권]

156) 정곡(鄭谷)의 시에 “靈一心傳清塞心 可公吟後楚公吟”이라 하였음.

157) 영아(靈樞) : 산삼. 삼아오엽(三樞五葉)으로 되어 있다.

158) 인형 : 인삼을 말한다.

紫霞洞

小谿幽洞自層層
一道名泉雨後勝
夕照近人松籟起
老身石上聽泠泠

자하동

작은 길 깊은 고랑 스스로 층층인데,
한 가닥 이름난 샘 비 뒤에 아름답네.
석양이 가직하자 솔소리 일어나니,
반석 위 늙은 몸에 시원시원 들리누나.

[완당전집(阮堂全集) 10권]

果寓村舍 二首

寒女縣西擁病居
溪聲徹夜甚清虛
羸牛劣馬橋前路
畫科蒼茫也屬渠

과천의 시골집에서 2수

한녀(寒女)라 고을 서쪽 병을 끼고 사노라니,
밤을 새는 시내 소리 몹시도 청허하네.
다리 앞 한길가의 여윈 소랑 조랑말은,
창망한 그림 재료 저 들의 차지로군.

兩山靑綠夾晴開
村氣泥醺盡野獸
不覺平生牛後恥
城中日日販柴廻

양쪽 산 파릇파릇 갠 날 끼고 트였는데,
마을 기운 무더워라 모두가 흐리멍텅.
우후(牛後)의 부끄럼¹⁵⁹을 평생에 모르는 듯,
성안에 가 날마다 땔감 팔고 돌아오네.

[완당전집(阮堂全集) 10권]

159) 우후의 부끄럼 : 『사기(史記)』 소진전(蘇秦傳)에 “寧爲鷄口 勿爲牛後”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소를 몰고 다니는 나무장사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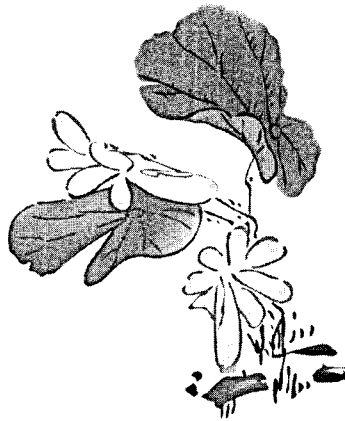
觀音寺

관음사160)

何時却買好溪山
小葺茆茨紫翠間
暑雨初收成獨坐
倩誰圖畫此清閒

이러한 좋은 강산 어느 제 사들여서,
붓고 푸른 사이에 초당 삼간 지을 건고.
더웠비 갓 걷히자 호을로 앉아 있자니,
누게 빌려 청한한 이 경지를 그리라지.

[완당전집(阮堂全集) 10권]



160) 서울특별시 동작구(銅雀區) 사당동(舍堂洞)에 있는 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인 조계사의 말사인데 895년 도선(道詵)이 창건하였다. 1863년(철종 14) 행임(行稔)이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 김문근(金汶根)의 도움으로 중수하였으며, 1924년 주지 석주(石州) 등이 대방(大房)을 중건하였다. 그 뒤 칠성각·산신각·용화전 등을 신축하였다. 현존하는 당우는 대웅전 외에 삼성각·용왕각·요사채 등이 있다.